무지개 다람쥐 가족의 하루

작은 사건 속에 피어나는 웃음과 사랑

글·그림 올레길

무지개 마을 참나무에 아침 햇살이 살랑 내려왔어요. 다람쥐 가족은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했어요. 따사로운 아침,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춤을 추었어요.

깜짝! 하늘에서 큰 도토리 한 알이 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형 도토가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외치지요, '와, 어마어마해!'

‘어떻게 할까?’ 가족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었어요. 아빠가 환한 웃음과 함께 말했지요. '다 함께 굴려보자!' 그의 큰 웃음이 햇살처럼 퍼졌어요.

낑낑, 도토리를 굴리는 다람쥐들의 모습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온 힘을 다해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숲에 울려퍼졌어요.

도토리가 굴러가는 길목,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가족의 손길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살랑살랑 바람도 우리를 응원해 주었어요.

마침내 도토리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다람쥐 가족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된 수고 끝에 한숨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 다람쥐들은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포근히 안아줬어요. 그들의 온기가 밤하늘의 별빛처럼 퍼져나갔어요.

커다란 도토리와 함께, 무지개 마을의 하루는 따뜻하게 끝이 났어요. 저녁 하늘에 별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무지개 다람쥐 가족의 하루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